

파주염씨 홈페이지
(http://www.pajuyom.kr)
에 오셔서 [전자족보-가승
보-책 족보(예 약) 신청]
신청하시면 됩니다.

坡州廉氏大宗會報

조상승배 (祖上崇拜)
후손육성 (後孫育成)
종친화목 (宗親和睦)



대종회장 염문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일가종친님들 그간 가내 두
루 편안 하십니까?

우리대종회는 1980년 7월
15일 처음으로 창립되어 오
늘까지 계승발전하고 있습
니다. 저는 2014년에 14대 대
종회장에 선임되어 3년간 맡
은바 소임을 다했으나, 15대
에도 다시 연임되어 중책을
맡고 있는 23세손 염문규 입
니다.

당시 13대 전임회장이신
염기봉 회장께서 누대 크게
발전시켜 왔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회장직 수행을 고사
하여 부족한 제가 그 역할을
이어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임 회장님들의 지

뿌리의 소중함과 후손들에 희망을!

- 파주염씨는 단일본이다 -

대한 업적과 경륜을 교훈으
로 삼고, 충언과 격려를 겸
허히 받들어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
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
리 중시조 충경공·제신悌臣
등 우리 염문의 조상님들은
고려말 명문거족名門巨族 으
로 조정에 門下侍中 등 문무
백관을 봉직하면서 不事二君
의 정신으로 고려국의 중흥
을 이룩하였지만, 고려말 무
진지화戊辰之禍의 난과 고려
의 멸망이라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우
리 일가들은 전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사는
곳을 본관本貫으로 삼는 등
파주염씨 이외의 많은 본관
이 자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조와 중시조가
같은 한 뿌리의 자손으로서
본관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마침 1986년(병인년) 대동
보(족보)를 발행하면서 시조
와 중시조의 관향貫鄉인 파
주를 본으로 통일하여 우리
는 모두 파주염씨 단일본으
로 족보상에 등재정리 되었
던 것입니다.

2015년도 인구조사에서
우리 염문은 26,585가구에
69,387명으로 대한민국 성
씨 순번에서 61번째입니다.

2014년도 대종회 총회에
서는 전자족보(인터넷) 사업
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어서
책자족보도 발행 할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
입니다.

족보 신청이 부진한 이유
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일상분주한 일들로
미루다보니 늦어 질 수 있다
고 보며, 혹시 일부러 기피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
다. 지역종친들은 모두 알
려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조
상의 뿌리를 확실히 알고
나서야, 나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 잘 될 뿐 아니라,
또한 후손에게도 필히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2018년 3월 대종회 총회
전 까지는 전자족보를 신청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
립니다.

한편 그동안 소임을 다하
면서 안타깝게 느낀 것은
2002년도 15호로 중단된 종
보宗報를 속간續刊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심 끝에 어려운
현실 여건이지만 이번에 대
종회보(종보)를 발행하게 되
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꼭 하
여야 할 일로 잘했다고 봅니
다. 앞으로 모든 염문일가들
이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염문의 유구한 역사
를 후손에게 길이 알리고 보
존해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
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뿌리의 소중
함을 일깨우고 단결된 염문
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후손
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염문의 자긍심을 갖도록 합
시다.

뿌리 깊고 훌륭한 조상의
후손임을 명심하면서, 조상
님들의 얼을 기려 명문거족
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미를 다하는 성실한 후손
들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조상승배祖上崇拜 후손육
성後孫育成 종친화목宗親和
睦으로 우리 염문을 발전시
켜 냅시다. 식물도 매일 주
인이 잘 보아주면 성장계수
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상을 섬기고 받드는 일
은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닙니
다. 그러나 조상님을 잘 섬
기고 추앙하면 집안에 정신
이 서고 반드시 복이 온 다
고 믿고 있습니다.

염문종친 여러분의 사랑으
로 파주염씨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심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2017. 11

大宗會長 염문규

- 해설 -

파주염씨 북석공파 종원
일동은 고 염규택 회장의 종
중을 사랑한 정신과 종중 재
산을 소중히 하고 지킨 공로
를 잊지 못해 염규택 회장의
1주기에 맞추어 2014년 4월
10일 공덕비를 세웠다.

북석공파를 위해 헌신함을
물론이요, 대종친회의 회장
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대
종친회의 근간을 세우신 열
정에 감동한 것이다.

종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는 늘 따사로운 햇빛처럼 다
정다감하셨고, 먼 미래를 내
다보며 종중 재산을 지키면
서도 종원들의 삶을 한 층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신
정성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지금도 고인이 마지막 사
업으로 정리하신 화성시 서
신면 백미리 선영에 공덕비
가 우뚝 서서 후손들에게 교
훈을 심어준다.

수원종친회 종원일동

故염규택 회장님 공적비

- 대종회장 3대 수원종친회 회장 50년 -



(故)염규택 회장님

파주염씨(坡州廉氏) 북석
공파(北石公派)는 고려 충경
공(忠敬公) 제신(悌臣)님의
12세손인 신검(愼儉)공으로
부터 유래한다.

신검공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양덕(讓德)공과 양익
(讓益)공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 양덕공은 수원 밤밭
[栗田]으로 이주하여 파주염
씨 율전파의 시조가 되었다.

양덕공은 계봉(繼奉)공을
낳았고, 계봉공은 북실(北
實)공과 북석(北石)공 형제

를 두었다. 이중 북석공이
현 북석공파의 파조(派祖)이
시다. 북석공 묘는 경기도
시흥군 남면 당정리에 모셨
고, 위토(位土)는 부곡리에
마련하였다.

1966년 중앙개발주식회사
가 골프장 건립을 위해 선조
묘역 일대를 매입하게 되면서
종원간의 소유권 문제로
일대 파란이 일어나자, 염규
택(廉珪澤, 生 1917~卒
2013) 회장님의 현신적인
노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2년 뒤 선조 묘역을 용인
군 수지면 이의리로 이장하
면서 13정보(町步)의 위토를
마련하였다.

이 묘역 일대가 1982년 행
정구역 개편으로 수원시 팔
달구 이의동으로 변경되었
고, 1991년에는 이의동 선
영 일부가 수원시 배수지 부
지로 편입되었다.

이때 나온 보상비를 회장
님의 혜안에 따라 1997년

입북동 공장부지와 율전동
종친회관을 마련하는데 사용
하였다.

2005년도 광교신도시 개
발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의 종
중 소유 토지가 전부 수용되
면서 또 한 번 선영을 옮기
게 되었다.

토지보상비를 분배하자는
일부 종원들의 주장도 있었
지만, 회장님은 이를 단호한
의지로 물리치시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화성시 서신면 백
미리에 선영을 마련하였다.

당시 염규택 회장님은 92세의 노구를 이끌고 선영
이장을 현장 지휘하시어 2008년 4월, 이장을 완료하였다.

평소 종중 재산은 조상분
묘 수호와 후손 장학사업,
그리고 종원 복리후생사업
등에만 한정적으로 쓰이도록
강력히 당부하신 방침에 따라
2007년 수원시 권선동소재
현대빌딩, 2008년 부천시 삼정동 소재 한양프라자,
2013년 화성시 반월동 소재
태양빌딩 구입 등에 투자하

여 종중을 튼실하게 운영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1996년 3월 부터
2005년 4월까지 세 번에 걸
쳐 파주염씨 대종친회 회장
을 역임하면서 재정이 열악
한 대종친회에 거금을 쾌척
하시어 파주염씨 대종중의
기반을 다지셨고, 대종친회
에서 경북 영천시의 도선산
(都先山) 구입과 종원이 아
닌 방씨(方氏) 묘가 그곳 선
산에서 이전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염규택 회장님은 장남인
염상덕(廉相德) 경기도문화
원연합회 회장과 종손(從
孫)인 염태영(廉泰英) 수원
시장을 비롯한 파주염씨 북
석공파 종원들의 정신적 지
주가 되셨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로서 천수를
누리셨다.

이에 신종추원(慎終追
遠)의 모범을 보이신 회장님
의 빛나는 업적과 공덕을 기
리기 위해 제 1주기를 맞이
하여 이 정석(貞石)에 새겨
후손 만대에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매현친목회 준태 회장님을 그리며...



(故)염 준 태

내가 서울지역 종친 모임인 매현친목회(梅軒親睦會)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준태(峻台) 회장님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할 때 생면부지인 준태 회장님의 점심초대를 받았다. 무슨 청탁 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종친이라니 뵙기로 했는데 매현친목회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나는 예의상 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다. 강릉 아버님(在字根字)은 나주, 강화 시제(時祭)에도 자주 참석하시는 등 문중(門中) 일에 무척 열심이셨지만,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강릉에는 문중 친목모임이 없었던 데다 공직생활 12년을 해외에서 보내 문중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매현친목회의 열성회원이 돼 있다. 일가들의 만남은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다. 점, 이해관계에 얹히지 않아 마음이 편하다는 점, 각계의 훌륭한 분들을 만나 인생살이와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준태 회장님의 열정 때문이다.

고원(古園) 준태 회장님은 매현충경공 20세손으로 1936년 9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린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조광피혁 미국 지사장과 가방업체 삼륜 부사장을 거쳐 1984년 여행용 가방 제조업체 (주)청륜을 창업해 베트남 호치민 공장과 파리, 뉴욕에 지점을 둔 연 매출 5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준태 회장님은 일찍부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셨다. 고교시절인 1957년 친구들과 봉사단체 심우회를 만들어 60여 년간 시골학교 교육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이

발, 목욕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기부에도 적극적이었다.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모교인 선린상고와 고려대 경영대학에 매년 1천만 원씩 ‘고원심우장학금’을 전달했고 2015년에는 고려대에 매현친목회 명의로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두 달 전인 금년 6월에는 닥쳐온 일을 예견이나 하신 듯 30여 년간 애장해 오던 운보 김기창 화백의 청화백자투우도호를 고려대에 기증했다. 1980년 제작된 이 작품은 백자위에 소를 그린 것으로 평가금액이 10억 300만 원에 달하는 명품이며 도자기 높이가 69센티로 김기창 화백 도자기 작품 가운데 가장 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가장이셨다. 이정자 여사와의 사이에 정훈, 동훈, 채현, 윤경 2남 2녀를 두셨고 자녀들을 부드럽게, 그러나 엄하게 가르치셨다. 준태 회

장님의 가르침은 “효도하고 충성하며, 우애하고 화목하라. 허영심을 내지 말고 빙한해도 즐겨하라”는 가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랐다. 장남 정훈은 (주)청륜의 뉴욕지사장을 거친 후 현재 부친사업을 경영 중이고, 차남 동훈은 MIT를 나와 현재 아마존 한국법인 대표로 근무 중이다.

준태 회장님의 염씨 사랑은 정말 각별하다. 신문에 이름이 난 종친이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 치하하고 종친회 참여를 권하셨다. 또 서울종친회 부회장, 대종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고 나주, 강화 시제 때에는 매현친목회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참석을 독려하고 교통편도 제공했다. 매년 강화시제에 매현 회원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순전히 준태 회장님의 열정 때문이다. 내가 강화시제에 몇 번 다녀온 것도 준태 회장님 때문이다. 여러 번 전화를 하시는데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매현친목회가 서울지역 종친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준태 회장님의 열정 때문이다. 준태 회장님은 1982년 5월 20일

국회의원 길정, 노동부 공무원 동원, 족보전문가 남섭, 치과의사 경철, 한일은행원 원종, 대원여객 찬모, 보석상 명렬 씨와 함께 매현친목회를 만들고 대부분 비용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정기모임이 끝난 후에는 자주 뒤풀이 자리 마련해 친목을 두터이 하도록 배려했다.

매현친목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치열하다 못해 눈물겹기도 하다. 염씨에 대한 기사가 나거나 친지들로부터 유능한 염씨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락해 식사에 초대하고 매현친목회 참여를 권했다. 모임에 빠지는 회원이 있으면 전화해 안부를 묻고 참석을 독려했다. 가끔 몇 사람씩 불러 식사자리를 마련해 정을 두텁게 했다. 그동안 사별 또는 연락 두절된 회원들도 많지만 아직도 43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하게 된 분들이다.

지난 35년 간 매현친목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준태 회장님의 재정지원 덕분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길정, 동련, 동렬씨, 대전시장에 출마한 홍철씨 등 정치인들을 후원해 당선에 기여하셨다. 이작은 모임에서 국회의원이 3명이나 배출됐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염재호 교수가 고려대 총장으로 부임하자 매현친목회 명의로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해 염문(廉門)을 빛내 주셨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항상 부부동반으로 멋진 송년회나 신년하례회를 마련해 주셨고, 회원들의 길상사에는 늘 참석하시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셨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거금을 희사해 현재 매현친목회는 회비각출 없이 운영되고 있고 상당액의 기금도 보유하고 있다.

노화(老化)된 매현친목회를 젊게 만들고 2세들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 유능한 젊은 세대들을 매현친목회 회원으로 유치하셨고 매현친목회 모임 날 옆방에 2세 모임을 만들어 2세끼리 교분을 갖도록 주선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특히 고려대 재호 총장, 국회 동열 의원, 부장검사 출신의 동신·옹철 변호

사, 치과의사 상국, 인하전문대 대건 교수, 경찰간부 광국·희숙 등 신참들에게는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

인간적으로도 준태 회장님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항상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술을 드시되 취하는 일이 없었다. 10여 년 전 채식주의자가 된 후부터는 채식습관을 철저히 지켰다. 항상 운화하고 겸손하셨지만, 웃지 않은 일,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추상같이 지적하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항상 따뜻한 인간애가 깔려 있었고 정(情)을 소중히 여겼다.

1990년대 초 내가 주독일 대사관에 근무할 때는 파리에 들리는 길에 나를 찾아 독일까지 오셔서 하이델베르그, 로렐라이, 라인강변을 함께 드라이브했던 기억이 새롭다. 웬지 모르지만 함께 오신 사모님은 준태 회장님 앞에서 매우 당당하셨고 준태 회장님이 늘 지는 것 같았다.

말년에 사모님께서 치매로 고생하실 때 오직 준태 회장

님만이 수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 부부의 정이 그렇게 두터웠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사모님 자신이 반년 남짓 후 준태 회장님도 사모님 곁으로 가셨다.

천상배필이란 그런 것인 모양이다.

금년 9월 8일 준태 회장님이 갑자기 타계 하신 후 아직 두 달이 되지 않았다.

아름다운 옛날을 회상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준태 회장님을 회상하는 일은 괴롭기도 하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제 매현친목회가 어떻게 돼 가려는지 걱정들이 많다. 나는 당분간 그런 걱정을 매어 두려고 한다.

옛부터 큰 사람 밑에 큰 사람이 난다고 했다.

준태 회장님이 가셨으니 새로운 ‘준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만일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하면 준태 회장님의 반목은 하지 않겠는가?

염 재 (21세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의 자랑스러운 인물



염동렬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염동렬(56세) 국회의원은 파주 염씨 21세손이다. 현재 매현친목 회장이기도 하다.

출생은 충남 공주 탄현에서 태어났으나 강원도 평창에서 자라고 성장했다.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전강원도지사 김진선 열린우리당 후보를 경선에서 박빙의 차로 당선하였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당대표비서실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최와 관련 유치, 조성, 운영, 홍보 등 큰 공을 세운 나라의 핵심인물로 활약 중이다. 앞으로 큰 발전을 기원한다.

염태영(57세) 수원시장은 파주 염씨 충경공파 24세손으로 경기 수원시 울전동에서 태어났다. 수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를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을 역임한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냈다. 2010년, 2014년 제26, 27대 수원시장에 당선되었으며, 수원시장으로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ICLEI(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글로벌 집행위원,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및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자치단체장 중 유일)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염석주

(廉錫住, 1895 ~ 1944)

염석주는 1895년 경기도 수원 율전리에서 만석꾼 재력가인 파주염씨 북실공파 염재섭(廉在燮)장남으로 났다.

염재섭은 소금과 비단도 바꾼으로 활동하면서 자수성 가한 인물로, 율전리에 간이 학교를 설립하여 육영사업에도 힘썼다.

염석주는 이곳 간이 학교에서 글을 배운 후, 1909년 15살이 되던 해에 수원삼일학교에서 신학문 교육을 받았다.

1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으며, 이후 일본과 서울로 전문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이 시기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미래에 관한 예측이 어려운 시점이었으며, 조선의 상황도 매우 유동적이며 암울한 상황이었다.

1910년 한일병탄, 토지조사사업, 1914년 1차 세계대전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1919년 3.1만세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폭발적 에너지가 분출한 시점이었으며, 염석주의 삶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해 3월 21일 3.1만세 운동이 한참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심경을 나타내는 시를 지었다고 한다. 구국의 노래이다.

- 구국의 노래 -

한달 두달 일인 구박받으니 더욱 밝게 살아 대한독립 만세 잘 살아가리 내사랑아 내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의복음식 넉넉하고 고대광실 좋아도 나라없는 내몸은 눈물뿐이라 내사랑아 내사랑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때는 삼월초하루 만세만세 소리에 대한천지 십삼도에 태극기 빛난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한민족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나를 잊지 않노라

아마도 3.1만세운동을 분기점으로 염석주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수원삼일학교에 매년 100원씩 기부해 학교 운영에 기여 했다는 기사가 1925년 동아일보에 실렸다.

또한 집을 매산동에서 안산 막고지(본오동)으로 이전하고는 이곳 인절미섬 일대에 소유한 대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한다.

염석주는 1928년부터 19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1929년 4월 14일에는 조선농민의 처참한 삶을 구제할 방법으로 만주 인

근을 시찰하고 ‘수덕농민단’ 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일대 궁민 10여호를 이끌고 봉천성 회덕현 오가지로 떠났다. 토지를 분배하거나 소작료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만주로 농민들로 이끌고 가서 새로운 농토를 찾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아마도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땅에서 뿐 내리고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수덕농민단의 최종 목적지는 화룡으로 추정된다. 1차 농장(이하 추공농장)에 참여했던 염규택은 길림성 연길 부근 화룡으로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이후 만주사변으로 피해를 본 후에 화룡지역은 간도지역으로 불리는 연길(용정), 왕청, 훈춘지역으로 항일단체들의 무장투쟁의 핵심지역이었다. 만주사변은 1931년 만철폭파 사건을 조작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병참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인 침략전쟁이다. 추공농장은 염석주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등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1929년 봉천으로 출발한 수덕농민단의 구성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일부는 만주에 남아 있고, 일부는 귀국했다.

염석주는 1929년부터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0년 오산 사회단체연합회관 낙성식 참여와 수진농

조사건으로 박승극과 더불어 겹거되었고, 총독부 고등과 요시찰 인물로 지속적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염석주가 안산 막고지에서 활동하던 1931년, 농촌계몽운동을 하던 최용신이 찾아와 “돼지만 기르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가르치시지요”라고 하며 지원요청하였고 이후 염석주는 최용신이 운영하는 수원군 샘골강습소를 지원하였다. 이 최용신이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존 인물이다.

1937년 만주사변 이후 2차 추공농장에 주력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장남 건택의 처 김광자(김마리아)는 3.1운동 당시 33인의 한명이었던 김창준 목사의 딸이다. 그리고 추공농장이라는 농장명칭은 당시 만주 노령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던 김창환 장군의 호인 추당을 따서 만든 것이다.

추당에 높임을 뜻하는 공을 붙여서 존중의 뜻을 붙여 김창환 장군에 대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공농장은 1차 회룡일대에서 2차로 오상시 충하진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무장투쟁이 활발했던 독립군 기지가 있었던 지역을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염석주는 유품에 밤발 땅을 담보로 하여 만주동척에서 대토를 받는 형식으로 대석하에 새로운

땅 60만평을 확보하고 제2추공농장을 건설하였다.

당시 일제가 만주 개발을 위하여 조선과 일본농민들에게 농업이민을 권장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염석주의 만주농장개발은 의심을 받지 않았고, 수원(밤발)과 안산지방의 빈농 100여명을 농업이민자로 제2추공농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이곳을 거점으로 독립투쟁에 필요한 기본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염석주의 경우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농장경영에 매진했다고 한다.

당시 농장에서 함께 했던 밤발과 막고지 일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서 생산된 소출의 일부를 김창환 부대 군량미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염석주는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의 꿈을 보지 못하고, 1944년 6월 16일 오후 경성부 서대문구 평동 정경성적십자 병원에서 사망했다. 염석주는 주변 인물의 배신으로 아지트에서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서대문적십자 병원은 관동군 후송병원역할을 했다고 한다.

고문에 의해 염석주가 사망지경에 이르자 가족들이 병원으로 가서 임종을 지켰다고 한다.

염석주를 찾아서
(애국지사 염석주와 신간회)

행정동우회 전남도지회장, 재광나주향우회장, 나주고등학교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에 봉사하였고, 충경공의 유훈(遺訓)을 받들고 추원보본(追遠報本)의 길을 잊지 않았다.

옹의 나라사랑에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장,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최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일제자료를 기증하고 시민역사관 건립 발기인이 되어 친일청산운동에 동참하여 민족정기 진작(振作)에 노구(老軀)를 불고(不顧)하니, 빛고을(光州)의 장로(長老)요 염문의 사표(師表)로 추앙(推崇)되고 있다.

저서로 후손(後孫)들에게 충효사상(忠孝思想)과 추원보본(追遠報本)을 실천하는 보감이 될 만한 『서전(瑞田)의 춘추(春秋)』가 있으



社會奉仕와 祖上崇慕에 獻身

- 나주골의 牧民官, 大宗會 顧問 瑞田 錦燮 翁 -



서전 瑞田 염금섭 廉錦燮

천년고도(千年古都) 나주 골의 금성산(錦城山) 자락에 용립(聳立)한 서원(書院)이 있으니 고려충신 충경공(忠敬公) 염제신(廉悌臣) 선생을 모신 충경서원(忠敬書院)이다.

충경공의 후예로서 선산(先山)을 받들고 돈목애족(敦睦愛族) 하면서 국가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목민

관(牧民官)이 있으니 그 주인공이 파주염문(坡州廉門)의 보배 서전(瑞田) 금섭(錦燮) (사진, 83.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옹(翁)이다.

옹은 전남(全南) 나주(羅州)에서 태어나 전남대(全南大) 법대(法大)를 나와 관계(官界)에 진출하여 민초(民草)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나주읍장, 도지사비서실장, 보성부군수, 나주부시장을 역임하니 여민동락(與民同樂)한 목민관이었다.

한편으로는 조상을 숭모(崇慕)하면서 충경서원의 건립에 남다른 현성(獻誠)으로 유림사회와 파주염문에서 찬사를 받았으나 매사에 겸양(謙讓)하고 근신(勤慎)하였다.

옹의 염문사랑은 대종회부

회장, 광주종문회장으로서 14년간 봉사하면서 서원 가꾸기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였고, 특히 서원 지붕을 반영구적인 구리기와(銅瓦)로 개조를 발의하고, 주간(主幹)으로서 진심갈력(盡心竭力)하여 완성하고, 충경서원 원지(院誌)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서원 창건 기실비문을 지어 건립하고 묘정비 건립과 각 사우의 현판을 반영구적인 재질로 교체하고 주차장 확보와 환경 정화 등 원내외를 정비한바 서원의 전체 모습을 훌륭하게 가꾸어 해동(海東)의 국보급 서원이 되었다.

옹은 환해풍파(宦海風波)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직에서 나와 사단법인 지방

며, 2016년 4월 13일, 비단골 목민관의 나라와 가문사랑을 담은 사적비(事蹟碑)가 동료들과 후학(後學)들의 정성으로 전남 보성(寶城) 계동(桂洞) 선산(先山) 아래에 건립되어 민초들의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광주종문회 제공)

忠 敬 書 院

所在：全南 羅州市 内榮山 2길 15-8(三榮洞 250)



중흥 1세조 충경공
염제신 선생 존영

충경서원 전경(전남 나주시 삼영동 내영산 소재)

본 서원은 고려 때 문하시 중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 충경공매현염선생(忠敬公梅軒廉先生) 휘제신(諱悌臣) 및 장자 예문관대제학 서성군(瑞城君) 국파공휘국보(菊坡公諱國寶), 차자 예문관대제학 서성군 동정공휘흥방(東亭公諱興邦), 삼자 우문관대제학 청강공휘정수(淸江公諱廷秀) 사손 상호군 판종부시사 송은공휘치중(松隱公諱致中) 위 다섯 분의 탁월한 학덕과 공훈을 숭봉하고 길이 후세에 전하기 위해 유림과 후손들의 뜻을 모아 1987년에 착공하여 1989년 4월(음 3월5일)에 완공, 총

경공 유상과 5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서원이다.

충경공은 충숙왕·충목왕·충정왕·공민왕·우왕 등 고려의 5조를 거쳐 29년 간 도원수 및 좌우정승과 영상을 지내면서 오직 나라와 겨레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니 공민왕께서 친히 공의 초상화를 그려 하사하셨다.

이는 보물 제1097호로 지정되었으며 공이 79세에 서거하시니 우왕은 목은 이색 선생에게 공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찬을 명하였고, 목은 선생이 지으신 비명으로 공의 묘하인 경기도 장단군 강남면 대곡리 노상에 건립

하였다. 광복 후 신도비가 북한에 위치하여 봉심할 수 없어 후손들의 현성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에 신도비를 세웠다.

서원의 건립내력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현 대종회 고문 홍섭이 당시 문중사를 기획하여 도선산 정비와 서원건립 추진에 대한 발의를 이끌어 잠자는 조상의 얼을 일 깨우는 데에 묵직한 교훈을 주었다.

이에 1987년 4월 9일 서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동년 5월 7일 착공하여 1989년 음 3월 초 5일에 준공 및 예성하고, 유

립의 뜻에 따라 충경서원(忠敬書院)이라 명명하였다.

이 역사에는 대종회를 위시하여 광주종문회(光州宗門會)가 주관하고 전국의 후손들과 나주종중(羅州宗中) 등이 성력을 다하였다.

특히 추진위원장 길섭, 상임부위원장 홍섭은 본사업비 현성과 추진에 앞장섰으며 능수 득수 동선 등은 영일동현 정환 기열 협력 규상 규대 규만 등을 협력하였고, 권의 기선은 현장감리에 심혈을 경주하였으며, 규삼은 문현수집과 제반주선에 정성을 다하였다고 충경서원창건 기실비(2000.10.3.)에서 밝혔다.

또한 완공 13년 후 서원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절감하여 당시 광주종문회장 금섭이 서원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지붕을 동기와로 교체하자고 발의하여 번화공사를 완수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동기와 서원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유지관리상 예산절감과 아울러 문화예술적 감각에서 볼 때도 한 차원 높은 서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충경공의 초상화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1371년 고려 공민왕이 친히 공의 초상을 그려 하사하고, 궁중의 내원당에 모셨으나 1392년 조선 개국과 더불어 다른 사찰로 옮기는 과정에 분실되었다. 이후 9세손 금재 현감공(錦齋縣監公) 주(宙丹城·鏡城縣監)가 충경공의 유상을 되찾는 데는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금재공이 경차관 시절 어느 날, 경기도 광주 땅을 지나던 중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 비를 피하려고 근처에 있는 암자에 들어갔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났다.

수인사 끝에 금재공이 염가 성을 쓴다고 하자 스님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충경공의

유상을 모실 자손을 만나서 반갑다며 보관하고 있던 유상을 내주었다.

그 유상은, 원래 원찰에 모셔져 있었으나 이성계의 역성혁명 후에 다른 사찰로 옮겨가던 중 국파공(菊坡公)께서 그 암자에 모셨는데 그 사실이 후손에게 전해지지 않아 분실한 것으로 된 것이다.

공은 유상을 봉심하고 백금으로 보은한 뒤 모셔 와나주에 금강서원을 건립, 유상을 봉안하고 매년 봄, 가을에 예를 갖추어 행사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조 사상과 효행이 뛰어났던 10세손 금포공(錦圃公) 희가 전란을 피해 유상을 집안에 봉안하여 목숨을 걸고 지극 정성으로 모셔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 후 나주 금강사에 봉안하였으나 또다시 행방이 묘연하던 중 1905년 보성군 문덕면 양동의 후손들이 발견하여 청계영당(淸溪影堂)에 봉안하였다.

1950년 6.25 사변 전란 중에 훼손을 우려한 도유사 정원이 초상을 자신의 집안으로 옮겨 봉안하고 있다가 1985년 파주염씨 광주종문회 길섭, 홍섭 등에게 전해주었다.

이후 길섭, 홍섭, 중섭, 남섭 등 후손들의 현로(賢勞)로 1991년에 보물 제1097호로 지정되었고, 파주염씨 나주문중(坡州廉氏羅州門中) 대표 홍섭의 명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충경서원 조동사에 모신 충경공의 초상화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진본의 사본이다.

2017년 10월
광주종친회장
염동현(21세손)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갈 150명의 법률전문가가 있습니다.

■ 염웅철 변호사 주요 약력

-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5기
- 대전지검 흥성지청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제3부장검사
- 서울고검 검사(형사/행정), 대전고검 검사(형사/행정/특허)
-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과장·법무과장
- 청주지검 부부장, 서울동부·북부, 부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 변리사 / 대한상사중재원 종재인 / 특허소송실무연구회 초대회장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 서초타워 17층 T.02-2046-0642

NEXIA INTERNATIONAL

三德會計法人

회계감사

법인 및 개인세무상담

조세불복



대표

염 인 선

Mobile. 010-9401-9788

E-mail. isyace@naver.com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S&S 빌딩 14층

동정공 후손의 600여년 집성촌 전북임실

여기 약560여년간 누대累代를 살아오고 있는 동정공 후손들의 집성촌이 있다.

전북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신평면소재지, 자연부락명 시암내)인데, 동정공의 장손인 4세손 각恪이 시거임실始居任實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용담에서 이거하셨다고 전하는 이야기는 있으나 生卒이 불분명하고 묘소도 失傳되어 정확하지 않다.

(註.파주염씨대동보1권)

그러나 그 아들 5세손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 응동應東은 배위配位까지 신평면 원천리 아차동에 묘소가 있고, 비碑와 상석床石이 놓여 있

는 등 실존하고 있어, 응동 應東 선조가 1456년 입향入鄉 하여 시거始居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집성촌인 신평원천마을은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뒤에는 동산이 배산背山하고 있는 등 배산임수背山臨水하고 산자수明山紫水明한 사람 살기에 적합한 복지라고 본다.

또한 강변에는 기름진 옥답沃畠이 있고 들과 산에는 밭들이 산재해 있는 등 중산간 마을이지만, 의식주 해결 및 자급자족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어, 평안하게 대대로 살아 올수 있었던 터전인 것으로도 확인 된다.

이곳 집성촌에 파주염씨가 많이 거주 했을 때는 약 100여세대가 살아왔으며 지금은 도시로 출향하여 많이 줄었지만 30여세대가 살아가고 있다.

자손들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孝悌忠信을 근본으로 삼고 부모와 조상을 잘 모시고 향화香火를 올릴 수 있는 경사재敬思齋 재실도 지었다.

근래에는 묘지관리유지가 어렵고 매장보다는 화장 후 납골당으로 안치 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에 따라, 종중에서는 납골당을 지어 유지운영 하는 등, 파주염씨동정공 자손들의 대대손손 계승기반을 튼튼히 다지어 놓았다.



아차동 종중납골묘

선대조상부터 누대를 이어오면서 조상들의 묘소가 대종중 사종중 할 것 없이 각처에 산재하고 있어 매년 가을이면 시제時祭지내는 일이 종중에 큰 행사이고 축제였다.

터 흘어져 있는 대종중 사종 중 모든 묘소들을 파묘破墓 후 유골을 화장 수습하여 여기 납골묘에 봉안하였고, 물론 동정공 조상부터 대를 이어 가유골함도 봉안하였다.

그 후에 작고作故 한 분이나 객지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고향납골묘에 안치를 희망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 1차 지어진 납골묘로는 감당이 안 되고 많이 부족하게 되어 더 지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다시 2차 납골묘를 2009년에 1차와 똑같이 316기를 옆에 더 지어 총 732기를 모설 수 있는 납골묘를 건립하여, 현재 운영관리중에 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납골묘를 종중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니 다 파주염씨조상의 음력이 아닐 수 없다.

파주염씨동정공후손의 임실신평집성촌은 이렇게 무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손들은 조상의 孝悌忠信의 근본정신으로 무장하여 나라에는 충성 공헌하고, 가정과 종중화목에도 솔선하여 대대로 천만년 이어갈 것이다.



경사재

파주염씨집성촌 원천마을 중심지역에 경사재敬思齋 재실을 지어 매년 음10월초 3일을 시제일로 정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일 년에 한번인 이날은 출향한 자손을 비롯하여 인근 파주염씨후손들이 참석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집안 간 화목을 다지기도 한다.

경사재는 정면3칸 측면2칸의 청기와집이고, 가운데 칸에는 제청마루가 크게 있어 여기서 제를 올린다.

울안에는 조경이 잘되어 있고, 예전에는 입구에 관리사 주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후정에는 경사재관리 텃밭도 있어 재실관리에 손색이 없어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다.

경사재처마 정면에는 敬思

齋란 편액 현판이 걸려있고, 제청 안에는 敬思齋記 액자가 걸려 있다.

경사재는 1942년에 건립하였으며, 敬思齋記를 보면 완산李存一이 글을 썼고, 글씨는 서예가 이자철이 썼다.

내용을 보면 우리선조 주부공主簿公 염응동은 비로서 임실에 살기 시작했다.

그 아들 진사공進仕公 壽丁(족보에는 壽로나옴)은 단종이 양위 했을 때 비통하여 통곡하고 산에 들어가 종신토록 출사하지 않았는데, 그의 자손들이 임실에 거주하게 된 것도 감히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기꺼이 은거하며 현달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살아서 임실에서 농사짓고 죽어서 임실에 묻히기를 한 조상에 대한 교훈이라고 본다.

었다.

경사재는 廉祥洙가 짓기 시작하여 완공될 쯤 돌아가시고, 그뒤 廉東源, 東燁, 東明이 후사를 맡아 완공하기에 이른다.

敬思齋記 말미末尾에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잊게 되고, 생각한다고 해도 공경으로 하지 않으면 망령된 것이다.

자손들이 조상을 친히 여기는 것이 마치 어버이를 친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상에게 한다면, 아무리 백대 조상이라 해도 부자父子처럼 이어 닿을 것이리라 하였다.」

(註. 임실문화원 2017임실의齋室180) 오늘의 우리 후손들은 깊이 생각하여야 할 조상에 대한 교훈이라고 본다.

근래에 들어서는 매장문화도 화장 후 납골묘에 안치하는 문화로 바뀌었고, 조상묘 또한 삼림이 우거져 묘지집 근조차도 어렵고 별초 사초 등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큰 애로사항이었고 문제 거리였다.

이에 대종중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납골묘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고, 마침 대종중 산 일부가 새로 생기는 도로개설부지로 편입되어 납골묘조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게 되었다.

납골당건립장소를 물색 하던 중 대종중 산 아차동(일명 아치실)에 있는 원천리 산28번지 약18ha 대종중 산 가운데 자리가 좋은 명당을 잡아 납골묘 조성을 하게 되었다.

1차 2003년에 316기 납골묘를 지어 5세조 應東조상부

동정공22세손 염상열

염정승골의 방씨묘 90년만에 이전



염정승골의 재상공 묘

1. 개요

1925년(을축년) 2월에 경북 경산 종인 염재경씨의 통고인 즉, 경북 영천군 남면 채약산 아래 염정동에 있는 상계 4세 재상공 염현(上系宰相公 휘 顯) 2세 국파공 염국보(菊坡公 휘 國寶) 3세 경은공 염치용(耕隱公 휘 致庸-국파공의 차남) 세분의 묘소 축간용축좌곤파(丑艮龍丑座坤破)가 구족보 묘소록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니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흐

르는 눈물이 옷소매를 적시는 줄도 알지 못하였다.

이에 금년 4월 25일(음) 전조선(全朝鮮)대종회총회를 경북 영천군 영천면 원내리 염준희씨 집에서 개최하여 전국의 일가분께 선조의 묘정에 성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방씨묘이전

1927년에는 영천(永川) 채약산하(採藥山下)에 재상공(宰相公) 국파(菊坡) 경은공

(耕隱公)의 묘소(墓所)가 황폐(荒廢)해지고 박해영(朴海英)이란 자(者)가 재상공(宰相公) 묘소 바로 앞에 그의 모(母) 산소를 투장(偷葬)한 것을 보고 주변을 재 정화하며 투장된 장소를 이장토록 수차 권하였으나 불응하므로 1927년에는 전국(全國)에 있는 일가에게 대책을 위해 전조선 파주염씨(全朝鮮坡州廉氏) 대종회(大宗會) 이름으로 통문(通文)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고 경산(慶山)의 재경(在敬) 함양서상의 재청(在淸) 합천 봉산의 재호(在浩), 황해 재영의 창석(昌錫) 영천(永川) 대창의 석진(錫辰) 등과 함께 연명(蓮名)으로 박해영(朴海英)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지방법원(地方法院)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1928년 11월 8일에 이장 되어 일부 이장비용은 공소인(控訴人)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判決)을 받았으나 비용이 마련되지 못해 집행을 못

한 채 해방이 되었다.

3. 대종회 차원에서 추진

1960년부터 방씨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차일피일 세월만 흘러갔으며 문제는 이전 비용이었다.

2009년 11월 대종회에서 일금 천만원(수원종친회 故염규택 회장지원)을 부산종친회로 송금하였고, 당시 부산회장 역임하신 염종수 염수동 염상술 3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2014년 15년 16년 대종회에서 방씨 묘이전 문제가 안전으로 상정되어 부산회장 염현식이 책임지고 이전토록 결의 하였다. 그간, 부산종친회 故염수동, 염종수, 염상술 전회장이 방씨 묘 관계자 박종남(박해영씨조카)과 협의 했으나 거절.

故염길정 전국회의원의 전한 말씀은 3,000만원에 매입해 달라고 했으나 좌절된 바도 있었다.

박종남의 사망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분묘이장 전문업체

(주)영창토건 대표 김영훈과 계약금 100만원 계약체결 박종남씨 오촌인 박상택도 종전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염상술 부산전회장이 발품으로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물보존소를 방문하여 가까스로 판결문 사본을 발급받아 당시 일어와 엔화로 표기된 부분을 번역 의뢰하여 계산서의 재발급과 번역된 승소판 결의 사본을 박상택에게 제시하여 비로소 절충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종회 전 염기봉회장님으로부터 일천만원 입금된 통장을 보여 주면서 급진전 한식일을 기해서 이장완료 약속하였으며 2017년 4월 3일 염상술 부산전회장 입회해서 이장완료.

4. 방씨묘 이전은 1927년부터 2017년까지 90년이란 세월이 흘러 결국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종친회 전회장 염상술
대종회 회장 염문규

그 무렵 또 한번은 10여명 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무실에 몰려왔다. 좁은 사무실이 꽉 찰 정도였고 우리 방수사관, 시보 등도 놀라는 눈치였다. 그분들 역시 신문을 보고 찾아 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경남 지역 파주염씨 종친들인데 부산지검 부임 축하차 멀리서를 찾아오셨다고 했다. 주로 거창, 함양, 창원 등지에서 오신 분들로서 일부러 일정을 잡아서 모여서 왔다고 한다. 역시 고향 얘기를 나누고, 항렬자들을 따져 보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고향 쪽에서는 내가 항렬이 매우 낮아 어디에 가든지 주위에 고조 중조 할아버지들 뿐이고 나보다 아래 항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이 곳에는 항렬들이 대부분 나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그분들은 염씨들 집성촌이 경남 지역 어디 어디 있으니 꼭 놀러 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고 그 후로 일요일이면 종종 거창, 함양 등 염씨 일가들이 많이 사는 곳을 가보게 되었다. 그 당시 3살 된 아들과 부산에서 태어난 딸을 데리고 가끔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반계영당(盤溪義堂)에 있다.

그분들은 염씨들 집성촌이 경남 지역 어디 어디 있으니 꼭 놀러 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고 그 후로 일요일이면 종종 거창, 함양 등 염씨 일가들이 많이 사는 곳을 가보게 되었다. 그 당시 3살 된 아들과 부산에서 태어난 딸을 데리고 가끔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반계영당(盤溪義堂)에 있다.

염가(廉家)로 사는 행복, 30년 전 부산

내가 순천지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전보발령 된 것은 1987년 6월 초순이었다. 월요일부터 새 출근이니 일요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우선 묵을 숙소로 검찰청(현재의 거제동 검찰청으로 이전하기 전 서구 부민동 소재) 부근의 여관을 찾아 보았다. 인사발령이 난 후 부임 일자까지의 이동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가 당시 부산에 전셋집이 무척 귀해서 일단 부임한 후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학교 때 해운대에 수학 여행 온 기억 외에 부산이란 곳을 전혀 와 본 적이 없어서 시내 지리를 전혀 모르는 나(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광주로 와서 초, 중, 고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로서는 검찰청 일요당직 직원이 추천한 대로 여관으로 들어가야 했고 청정문에서 바로 가까운 억수장이라는 곳에서 우선 묵기로 했다. 그곳에서 묵으면서 적당한 전셋집을 알아보려는 요량이었다(지금은 지방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들에게 관사가 주어지만 그 때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억수장 여관은 청

에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이로운 점이 있었지만 아래층에 억수탕이라는 목욕탕을 겸하고 있어서 밤낮 없이 너무 소란스러운 것이 큰 단점이었다(이곳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7년 곽경택 감독의 '억수탕'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상당 기간 여관 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여려모로 억수장에는 도저히 있기가 어려워서 3,4일 만에 청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국제시장 쪽 대로변 여관으로 옮겼다. 그런데 당시는 전두환 정권 말기의 소위 6.10 항쟁에서 6.29 선언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4.13 호현 조치 반대,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와 이한열 사망(6월9일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7월5일 사망)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대도시 부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더욱이 노무현 변호사를 비롯한 쟁쟁한 투사들이 활약하는 시위와 진압 경찰 간에 격돌들이 난무했다. 중심가인 남포동, 광복

동 일대에는 항상 최루탄 냄새가 자욱하여 길을 걸으면 서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해가 진 후에도 시위가 계속 되었고 퇴근해서 대로변 여관 방 창문을 열어 놓으면 최루탄 연기가 들어와서 방 안에서도 연기와 냄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정도였다. 결국 1주일 만에 다시 용두산 밑 공기 좋은 곳으로 여관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중년과 초로의 신사 서너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분들은 신문에서 염씨 검사가 부산지검에 오는 발령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축하 인사를 하러 오셨다는 것이다. 부산시 파주염씨 종친회 회장, 고문 등 임원분들이었다. 본관이 파주라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고향과 항렬자를 따져보니 나의 아저씨뻘도 계시고 조부뻘도 계셨다. 몇 가지 대화를 하다가 숙소를 어떻게 정하였냐고 묻기에 용두산 밑 여관에 있다고 하니 그중 고문님이라는 분이 검사가 어떻게 여관생활을 하느냐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다면 서 전셋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기거를 하라고 권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성씨라고 하더라도 초면인 분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도무지 경우가 아닐 뿐 아니라 정확한 신상을 알지도 못하는 분의 집에서 기거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극구 사양을 하였다. 여러번 거절을 하였지만 그 분이 본인과 가족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간곡하게 권유를 하였고 일가 간에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여관에 있는 짐을 자신의 집으로 당장 옮겨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부터 전셋집을 구할 때까지 난생 처음 69평의 큰 아파트(당시 부산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에서 무려 석달을 살게 되었다.

생면부지 타관 사람을 한 시간 만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분이나 모든 것을 믿고 그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파주염씨가 아니라면 불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후 그분들이 물색해 준 부근 아파트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서 3개월을 넘게 살았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 속으로 감사하게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은 염씨들 집성촌이 경남 지역 어디 어디 있으니 꼭 놀러 오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고 그 후로 일요일이면 종종 거창, 함양 등 염씨 일가들이 많이 사는 곳을 가보게 되었다. 그 당시 3살 된 아들과 부산에서 태어난 딸을 데리고 가끔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반계영당(盤溪義堂)에 있다.

(다음면으로)

影堂)에 가서 충경공 할아버지의 사진도 보고 일가분들과 함께 거창에 있는 수승대나 부근의 농월정 등을 구경하려 가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다.

2년쯤인가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의 일이다.

거창에 사시는 분으로서 연세는 나보다 상당히 위지만 내가 한 항렬 높기 때문에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우리 집사람을 숙모님이라고 부르는, 즉 조카뻘 되는 분이 딸을 결혼시키게 되어 거창읍에 있는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일요일이 결혼식이라 토요일 저녁에

그 집에 가서 하루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동네 염씨들과 함께 방에 앉아서 이 동네 아이들도 내가 어렸을 때처럼 학교에서 별명이 ‘염소’라고 불려서 싫어한다는 얘기, 염씨들은 어디 가나 딸들이 아들들보다 똑똑하는 얘기 등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방안 책꽂이에 꽂혀 있던 파주염씨 족보를 꺼내어 보게 되었다.

이집 저집 족보를 들여다보고 우리 집안과 그 조카분 집안을 비교해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윗항렬인 줄 알고 그 동안 아저씨 행세를 하며 지냈는데, 책의

권수는 다르지만 나와 그분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비교해 보니 둘 다 같은 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내가 그 분의 동생 뱀이 되는 것 이었다.

2년 넘게 아저씨 노릇하다가 갑자기 동생이 되는 순간 이었다.

아울러 자동적으로 그 마을 분들이 한 항렬씩 높아져서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아저씨, 숙모가 되었다.

모인 친척들과 함께 한바탕 웃고 조카이던 분이 나에게 “이제부터 내가 형님이 데이. 동생 그리고 제수씨

이해 하그라”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형님 아우가 되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대(代)와 세(世)의 개념이 다른데 그 분들과 내가 두가지 용어를 혼동하여 한 항렬의 착오가 생긴 것이었다.

내가 충경공 할아버지의 25세 손(충경공 할아버지)을 1세로 숫자에 포함시킴)이고 동시에 충경공 할아버지가 나의 24대 선조가 되는 것이다. 그후 부산을 떠나 서울에 와서도 그 마을 분들로부터 “동생 잘 있나, 조카 잘 있나” 하는 전화를 종종 받았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부산 시절을 잊지 못한다. 처음 본 그리고 또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타관 사람을 내 고향에 있는 친 가족 이상으로 대해 주고 돌보아 준 부산 경남 일대의 일가분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울러 그토록 빛을 켰는데 아직까지 그 빛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종종 사로잡히곤 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김해김씨나 전주이씨로 태어났다면 상상도 못할 행복 아닌가.

염웅철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답’이다.



올해는 현행 헌법체제가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요청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또한, 올해로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가 22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만 주민들이 선출할 뿐, 조직·재정 등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와 그늘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가끔씩 시민들이 집무실에 방문하여 “수원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민원해결을 요청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재정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지

자체는 ‘을(乙)’의 입장에서 ‘갑(甲)’인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국가의 업무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으로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단 2개이며 그것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된 조례제정권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어서 시민들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교통신호에 대한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 하나도 수원시가 마음대로 놓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 3개가 나란히 한 통로에 설립되어 있는데 길이 너무 비좁아서 학부형들이 요구하기를 “길을 넓혀 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타리 쪽과 그 사이에 바위와 잡풀이 있는 공간을 허물어 조정해 주려고 하는데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해도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원이 상담하고 혈액 채취 후 샘플을 보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했는데, 이런 역학조사원이 경기도 전체에 2명이고 심지어 우리 수원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태 초기에는 경기도 역학조사원 한 사람에게 상담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질병 관리본부에 보내면 2~3일을 기다렸다 전화를 걸어 결과를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부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니까 며칠 걸리던 것이 몇 시간 만에

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변화의 바람

올해 민선 20여년을 맞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중앙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가 정당의 지도부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 시장들이 당당하게 참여해 신선한 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



“지방자치가 밥 먹여 주나?” 또는 “지방분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최우선인 시대가 왔습니다. 낮고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생활정치, 참여정치의 해답이 지방자치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지방정부가 구심점 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고 동시에 진정한 자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디딤돌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과 연대, 협력의 힘으로 관철해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우리 종친회 종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대종회를 이끌어 오시고 대종보를 발간해 주신 염문규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택내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염태영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 의심환자이면 우리시 공무원이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갖고 쓸 수 있으니 역학조사원 정원을 할당해 달라, 메르스가 끝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한을 달라

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중앙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지방 정치인들도 중앙정당의 지도부에 입성하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후보의 가능성도 엿보이게 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종친회 근황과 활동

坡州廉氏 大宗會報를 15년 만에 發刊하면서 대구 종친회 활동을 소개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무엇을 써야 할까 망설여졌다.

어느집안 어느지역이나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에 집성촌이 해체되고, 씨족문화가 결집력을 잃어가고 있고, 대가족에서 소가족, 다문화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민족 정신문화와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족보를 중시해 왔다.

시조로부터 父系 중심적 혈통관계를 世代, 世孫, 寸數 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편집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只可有一, 不可有二한 민족 유산이다.

족보가 없는 자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姓氏에 대한 자긍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해왔다.

대구종친회는 1980년 말부터 故廉吉正국회의원 선친

께서 대구에 살고 있는 일가문들을 모아 친목회를 매월 갖게 되었고 회원수가 늘면서 1993년 봄 대구 경북 종친회를 개최하여 定款을 제정하고 會則도 만들고 각 지역 門中有德者를 理事로 선임하여 명실공히 광역 종친회 수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14년 3월 大宗會에서 30년 週期(전 1986년)의 족보편찬을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자족보를 구축하여 동시에 책자 족보를 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책자족보에 관심이 많은 기성세대들은 거의 컴맹이라 거부감이 강하고,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없어 쉽게 생각했던 인터넷족보 수단방식이 좀처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대구 종친회에서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우선 안내문, 수단표작성 방법, 각 200부씩 인쇄하여 회원 가정으로 몇차례 우송하였고, 매월 이사회를 열어 수단 방법을 설명해 봤으나,

각 개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자기가 몇 世孫인지 족보 몇권 몇페이지에 있는지, 책을 보지도 못했고 책이 있어도 찾을줄 아는 者가 전무 상태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손자 가족 수단표를 작성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지역 이사들은 자기지역 문중별로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일가들 가족 관계증명서, 재적등본을 때어 모아 놓도록 독려했다.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작성하거나,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었다. 실적이 나기 시작했다. 문중별 수단 실적, 안동진보(德相 22세 자문위원) 170명, 합천(성해 23세 회장) 160명, 거창고척(재수 24세 문중회장) 135명, 고령 성주(종우 23세 고문) 95명, 진주(천석 25세 문중회장) 110명, 합천묘산(학광 25세 고문) 70명, 함양안의(상덕 24세 문중회장) 120명, 청고(영수 22세 자문위원) 120명, 포항(길성 22세 부회장) 20명, 영동옥

천(동주거세 부회장) 15명, 칠곡(성용 24세 부회장) 30명, 총무(23세 실향민), 이사(국서 25세), 이사(성영 25세 거창), 종옥(21세 옥천 이사) 모두가 고향문중을 대표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었다. 특히 총무의 노력이 컸다.

전국 어느곳이든 요청이 오면 단한분이라도 찾아가 수단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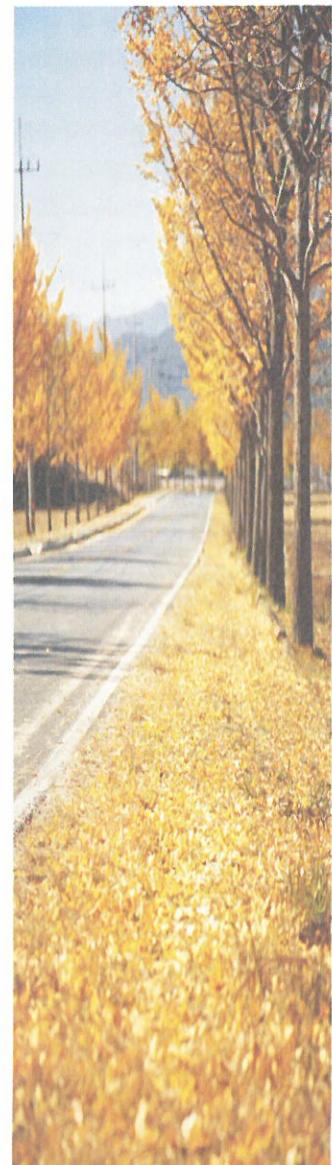
김해, 밀양, 경주, 영천 등 가는곳마다 일가분들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고맙다며 후한 대접도 해주셨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血肉의 情을 느꼈다.

아쉬웠다면 全南北 光州일 가분들의 가문을 한곳도 접수해 보지 못한 점이다.

대구 종친회에 가입된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同根 相親愛로 和睦한 지역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대구경북 종친회장
염성해(23세손)

되었다.

라. 1996년 파주 염문 모임이 발족되어 전국에 살고 있는 일가규합 시군의 견의와 호소문 진정서가 일조가 되어 배로만 가던 선영을 용강사 참배에 길을 뚫어지고 2007년 4월에 600년에 걸쳐 살아온 파주염씨 세거비를 세웠고 중시조를 비롯하여 7위의 선조님을 모시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17년 10월
대전종친회장 염기광

용강사

1. 주소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복면 용호리 윗골

2. 건립 : 창건 1959. 3. 8(음) 방아실 낙성 이축 1979. 10. 용호리 이축

3. 봉안 : 본관-충경공(1세) 주벽으로 국파공. 동정공. 청강공(2세 3분) 별관-경은공(3세) 권무공(4세) 판서공(4세)

4. 연혁

가. 고려조 명문 거족으로 위상을 확고히 굳히신 문하시중 곡성 부원군 충경공 염제신(1304-1382)은 국파공. 동정공. 청강공의 세아들을 낳아 장원 급제를 비롯 삼형제 분과 급제의 영광속에 고려조의 큰 별이 되어가던 중 무진 정변으로 어이 없는 멸문의 화을 입고 분산 은거의 비운속에 고려는 조선으로 바뀌게 되니 두문동 72성씨들과 같이 절의를 고수하면서

온둔 생활을 하게된바 옥천으로 피신하신 증(4세) 또한 공조판서 벼슬을 고사하며 출사치않고 학문에 골몰하시다. 방아실(옥천군북) 후손들이 화일에 자리 잡고 자자손손 600년을 한결같이 살아오면 자랑스러운 선조님들의 혈통과 유지를 적극적으로 계승한 사유가 있어야 하겠다는 뜻을 모아 1958년 무술 7월에 준공하여 1세 충경공. 총7위를 모심.

나. 1958년 음력 3월 8일

초청일에 향사 하며 추모와 유지계 지성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600년에 세거지가 대청댐으로 인하여 말로만 들어온 상전벽해로 변하던 날 또 다시 염문들은 타향 각지로 분산되었고 힘겹게 대정리에 세운 용강사를 옮겨 세워야 할 큰일이 생겨 삶에 지친 노약자들이 감히 생각 조차도 못하고 있던 차 지균. 혁균. 노흔의 각고 정성으로 2년에 걸쳐 1979년 준공 되

명한의원

한의학박사 / 원장

염현식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3 (동광동4가)
TEL. 051-469-5543, 463-9266
FAX. 051-469-0810
E-mail. vivapops@naver.com

진료과목
· 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침구과

염낙귀 세무사사무소

T. 061-371-5050

F. 061-371-8448

M. 010-3609-6701

E. yeom6022@daum.net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43 (화순군청 민원실 옆)

농협 356-0813-4967-93

전자족보 수단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재 대동보는 1986년에 발행된 丙寅譜입니다.

이에 새로운 족보를 발행할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2014년 대종회 총회에서는 현대시대에 부합한 전자족보를 완성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동보(책자족보)를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전국의 지역종친회 모든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수단을 접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만, 저조한 참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연장만 할 일은 아니어서, 이제 마감을 하고 새로운 대동보를 맞이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초창기에 접수하신 분들께서는 4년 여를 학수고대 하며, 대동보를 보게 될 날을 기다리셨으므로 부득이 금년 말로 마감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지금이라도 온 가족 남녀노소 누구 한 사람 빠짐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병인보에 등록이 되고 안되고 를 불문하고 모든 염씨는 새로 등록하셔야 새로 발행되는 대동보에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족보를 등한시하며 “요즘 세상에 무슨 족보가 필요 하느냐” 하면서 기피하고 있는 예를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개와 고양이한테는 오히려 족보를 만들고 새끼를 낳으면 등록 하고 비싼 가격

으로 거래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禽獸(금수)만도 못한 인간으로 격하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족보를 올리고 싶어도 조상님의 계보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전전긍긍 찾아 헤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머지않아 태어나는 후손들에게는 조상이 됩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의 오만과 편견 또는 판단착오와 방심으로 족보에 대를 잇지 않아 면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을 원망하며 계보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깝게 하려 하는지요. 왜? 후손들이 족보에 올릴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는 조상이 되고자 하는지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옛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에 이름이 남겠습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제적이 되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영원무궁하게 유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책자에 올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30여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빠짐없이 등록하시어 멋진 조상이 되시고, 이웃 일가들께도 알리시어 참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구매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잘 숙지하셨다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입 신청과 대금 입금입니다.

요즘 대종회를 사칭하며 이상한 책자 3권을 택배로 보내고 20여만원을 입금하고 격하 타락시키는 사기꾼이 있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만약 이런 식으로 책자가 오면 개봉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반송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금은 반드시 인터넷에 공지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인터넷파주염씨홈페이지(<http://www.pajuyom.kr>)에 오셔서 [전자족보-가승보-책족보(예약)신청]에서 신청하십시오.

이름, 택배 받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입금은 그곳에 나와 있는 계좌에 입금합니다.

그 다음 책자족보의 초안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전자족보-가승보-대동보초안]에서 보시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자료를 찾아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어 반영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파주염씨가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족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 부분에서는

모든 생존자의 자료를 현행으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책자족보에 기록하던 족보자료는 물론 회원관리를 위하여 연락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종친회와 직책 등을 빠짐없이 등록합니다.

회원관리를 위한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은 책자에 수록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회원으로 참여를 않더라도 등록해야만 본인이나 가족의 자료를 볼 수 있고, 수정 신청도 할 수 있으니 한 세대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력 부분으로는

1. 자손록을 개인별, 형제별, 자녀별, 책자형태별 등으로 출력하여 줍니다.

2. 상계계보도 출력-상단에 시조부터 본인까지의 직계를 나타내고, 하단에 5대조에서 본인까지 방계포함 출력합니다.

3. 후손색인부-원하는 분의 후손 전체를 페이지당 9대손 까지 출력합니다.

4. 명함판계보도-지갑에 소지하여 종친회 모임 등에서 서로 갈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조부터 직계계보를 출력하여 지갑에 넣고 다닐 크기로 출력하여 줍니다.

5. 묘소위치를 위성지도와 연계하여 출력하여 줍니다.

6. 벽자의 출력-사전에 없는 한자, 현재 컴퓨터에 없는 한자 등을 이미지로 만든 한자가 아닌 폰트(font)로 제작하여 출력하여 줍니다.

셋째. 촌수 자동 계산

두 사람의 이름을 입력받아 촌수와 관계를 계산하여 출력하여 줍니다.

넷째. 족보자료의 수정. 추가 부분

출생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 이사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읍.면.동.구청에 신고 후 전자족보에도 신고 토록 합니다.

또 묘소이장신고, 대학이상의 학위취득 및 취업.승진신고, 훈.포장 수상, 1급이상 면허.자격취득 등이 발생하면 수정신고토록 합니다.

필히 숙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계현황 부분

연령별, 파별생존, 파별사망, 세대별, 연도별생존, 장수어르신, 이름선후, 지역별 가구, 사돈의 성씨별, 가구별 자녀수 등의 통계를 출력하여 나타냅니다.

우리의 전자족보는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독자적으로 운영되므로 타 성씨처럼 어느 회사에 종속되어 운영되는 것과는 비교도 않되게 즉시 현행으로 출력합니다.

여섯째. 기타 관리 부분

1. 온라인으로 수단서를 작성케하고, 수단서 작성과 동시에 납부 수단금이 실시간 출력시켜, 금전관리를 투명케 함.

2. 게시판도 전자족보 회원과 연계시켜 전자족보에서 로그인하면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됨.

3. 한자옥편-2만7천여자의 옥편 제공.

4. 족보용어 사전- 2,627개의 용어집.

5. 옛지명 사전-1,500여의 옛지명 사전.

6. 오류 체크-수단서 작성 과정 또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추출하고, 특히 수작업에 의하여 발생된 족보를 보면 중복으로 등록된 자료가 많이 발생하는 바 이를 색출하는 기능 등등.

이상과 같이 우리의 전자족보 기능은 운영과 활용에서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작되었다고 자부하는 만큼 우리의 일가들이 가치있게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염명선(23세손)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수원농협!! 모두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산지소(地產地消)

효원미 드시고 건강하세요

“효원미” 애용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수원농협 효원미, 진상미

수원시와 수원농협은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경기미인 효원미, 진상미 판매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품질 좋은 효원미, 진상미는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및 경제사업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염규종



(주)대명스틸

철근가공 | 조립 | 판매

대표이사 염수해

Mobile. 010-3559-4005

E-mail. hyeesoo@naver.com

제 1공장 : 경남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188번지

T. 055)521-4412~3 F. 055)521-4414

제 2공장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32번지

T. 055)536-9024 F. 055)536-9025

大宗會 소식

2017년도 정기총회 (2017년도 3월)

1. 참석인원

- 대상 : 명예회장, 고문 자문, 지역회장 등 72명 서신발송
 - 참석인원 : 36명
- ※ 전주회장님 염동호(88세) 참석

2. 토의 사항

1) 회무보고

- 강화사단 묘지 관리문제
- 미등기 토지(주차장) 실효재배 강화 및 재산세
(재산세 - 전소유의 아들과 협의)
- 신도비 회향목 정비(정지)
- 전자족보 총 8,400명 수단비 결산보고

2) 의안심의

▶ 제1호의안 : 원한대로 통과

※ 정기예탁금 이자율 문제 → 새마을금고 분산예탁방안 제시

▶ 제2호의안 : 2017년도 예산 심의 안

※ 찬조금은 종보발행 계획으로 광고비 활용안 제시
※ "근사미" 억세풀 제거 할 수 있다 예산 늘려서라도 시행

▶ 제3호의안 : 전자족보 관련 토의 (안)

- 2017년말까지 전자족보 접수 받고 마감하기로 하였음
- 수단의 어려움 : 전주회장, 춘천회장, 제주도 출장
- ※ 족보무용론자가 대부분
- ※ 이럴줄 알았다면 전자족보 시작 후회 됨

▶ 제4호의안 : 강화사단 정비계획 안

- 재원 마련에 어려움
- 제초제로 최대한 관리 후 2018년 재론

▶ 제5호의안 : 임원 선임 안

- 현 회장이 1회 연임하기로 단 현직(동화운수(주))
근무를 떠나면 능력부족으로 임무수행 불가능
- 종보 편찬을 위한 위원구성
매현회 : 염상열, 염은식(필요시 추가섭외)
수원종친회 : 염상옥, 염상천
대종회 : 염명선
※ 강화시재 : 기타

▶ 제6호의안 : 기타

- 미등기 토지 실효지배건 강화 : 유실수 등
- 2018년도 등기 협의 및 불가능시 소송제기
- 영천 방씨 묘소이전 – 2017년 종결

3. 금회 찬조해 주신 분

- 계좌이체로
 - 고문(염금섭) 500,000원
 - 송정종친회장(염인섭) 200,000원
 - 대종회 자문(염기원) 춘천 100,000원
 - 총회당일
 - 보령종친회장(염규현) 300,000원
 - 안동종친회장(염복진) 200,000원
- ※ 대종회 발전을 위해 집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기타사항

- ※ 지역회장 신.구 변경내용
- 안동종친회장 염덕상 → 염복진
- 보성종친회장 염춘환 → 염태권
- ※ 영천(재상공.국파공), 임실(동정공) 시제날짜 같아
종정문제-대종회장 참석(대구회장)
- ※ 나주금강사 폐지 → 충경서원
- ※ 반계영당 (함양) → 존폐문제 – (부산회장) – 총회 종료 이후
- ※ 명부 작성시 성 제외하고 세손적용문제(광주회장)

◆ 가을시제 안내

- 나주 충경서원 2017. 11. 22 광주종친회주관
- 임실 동정공 경사재 2017. 11. 20 임실종친회주관

- 영천 재산공. 국파공. 경은공 2017. 11. 20 부산종친회주관
- ※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미사리가구

대표 염 규 현

M. 010-5317-7090 T. 055-346-0283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170-1
 자이언트가구백화점 2층


INART
자연을 닮은 가구, 인아트


대양철망공업사

"조달청3자단가계약업체"

용접철망 / 메쉬휀스 / 개비온 / 낙석보호망

대표 염 세 환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472 T. (061) 337-4747~8 F. (061) 337-4749 M. 010-3603-6680
 	광주 · 전남, 북 최초 PVC코팅 철망 KS인증 단체표준표시인증업체 ·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발전기금 및 현성금(강화시재) 내역

1. 발전기금- 통장계좌로(2017년도)

순위	성명	금액	비고
1	염금섭	500,000	대종회고문(광주종친회)
2	염기원	100,000	대종회자문(춘천종친회)
3	염인섭	200,000	송정종친회 회장 염인섭
4	염규현	300,000	보령종친회 회장, 보령한의원 원장(총회시 현금)
5	염복진	200,000	안동종친회회장(총회시 현금)
6	염동호	1,000,000	전주종친회회장
7	염상복	1,000,000	수원종친회회장
8	염택영	300,000	전북 고창읍 염치과원장(063.564.4438)
9	염광표	500,000	전주종친회 부회장
계		4,100,000	

2. 강화현성금(2017. 3. 9)

순위	성명	금액	비고
1	염문규	1,000,000	대종회 회장
2	염재선	200,000	시흥 도창종친회(세명대전총장)
3	염순길	300,000	춘천종친회 회장
4	대구종친회	100,000	
5	염성해	100,000	대구종친회 고문
6	염중우	100,000	대구종친회 고문
7	염범수	50,000	서울 송파구 마천동191-33
8	수원종친회	500,000	회장 염상복
9	부산종친회	100,000	
10	염현식	100,000	부산종친회회장
11	염규일	50,000	양평읍 양근2리 706(010.9383.3345)
12	염육철	50,000	서울 성동구 마포로14길 3
13	염배식	50,000	마장동 현대A 105/2204
14	광주종친회	200,000	
15	염동련	100,000	광주종친회회장
16	안양종친회	300,000	회장 염재홍
17	대전종친회	100,000	회장 염기광
18	염덕상	200,000	안동종친회 전회장
19	염상술	50,000	부산종친회 전회장
20	염재구	50,000	성북구 지봉로 24길 5 이파크 오피스텔 303호 010-7633-8177
계		3,700,000	

※ 합계 7,800,000원

※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보유현황

1. 강화사단(충경공, 국파공, 동정공, 청강공)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평)	비고
신원면 냉정리	240-6	대	899(292)	신도비 주택44.8(14)1동
	264	대	1,679(508)	제각1동 38평 1동 10평
	264-1	전	506(153)	외가 뒤
	262-9	전	2,919(883)	사단
	262-1	전	906(274)	사단하단
	265-2	대	139(42)	2층집 1등
	산70-44	임	1,983(600)	묘소하단
	산70-46	임	5,657(1,711)	묘소
	산70-62	임	1,427(432)	외가 옆
	소계		16,115(4,874)	

2. 영천사단(재산공, 국파공, 경은공)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평)	비고
영천시 금호읍 역남리	산19-1	임	16,685(5,047)	

3. 합계 : 32,800m² (9,922평)大宗會任員

명예회장	염기봉(전회장)
고문	염홍섭(광주) 염금섭(광주)
자문	염은식(매현회) 염상술(부산) 염한호(부산) 염행숙(광주) 염영록(대전)
회장	염문규(대종회)
지역회장 (당연직부회장)	염동렬(매현회) 염현식(부산) 염동련(광주) 염상복(수원) 염순길(춘천)
감사	염상옥(수원)
도유사	염상천(수원)
총무이사	명선
이사(23)	재홍, 삼섭, 형렬, 태모, 돈호, 규현, 춘환, 영섭, 광표 우섭, 규만, 용희, 영철, 덕상, 재수, 천수, 천석, 순천 기섭, 인섭, 상천, 규성, 규현
대의원(23)	순길, 기범, 필환, 동혁, 주복, 창선, 동운, 완배, 태권 영호, 재권, 태경, 기용, 정인, 인선, 홍섭, 주인, 은식 창만, 희선, 한균, 신섭, 철용

성 진 분 체

컨베어 · 판금캐스 · 기계 · 금속 · 간판 · 특수칠
각종 후레임 · 분체 도장 전문 건조로(15m)보유

대표 염 준 호

1공장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북로 2길 24
2공장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7길 38-21
TEL. (053) 359-2926 FAX. (053) 358-2925
H.P. 010-2162-4567

iOH드맥스 종합 인쇄기획

Total Printing Solution

복사 · 제본 · 봉투 · 명함 · 현수막 · 포스터
전단지, 실사출력, 카다로그, 리플렛 외 각종인쇄

염 태 훈

TEL : 031)215-0745 FAX : 031)215-074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211번길 3

各 地域 享祀日 (안내)

명 칭	일 자(음)	지 역	신 위	행 사 주 관
盤溪影堂 (반계영당)	3월12일 日 (2/15)	경남. 함양	충경공	거창회장 염재우 (010.3883.1159)
忠敬書院 (충경서원)	4월1일 土 (3/5)	전남. 나주	충경, 국파, 청강 15위	나주 유림
龍江祠 (옹강사)	4월11일 火 (3/15)	충북. 옥천	충경공 外 7위	용호종친회 총무 염대성 010.5406.2753
錦江祠 (금강사)	4월6일 木 (3/10)	전남나주. 송월동	충경공 7위	
龜淵祠 (구연사)	4월11일 火 (3/15)	경북. 청도	충경, 국파공 5위	
淸溪影堂 (청계영당)	4월2일 日 (3/15)	전남 보성	충경, 국파공 5위	보성 종친회장 염동만 (061.852.1055)
孝坪祠 (효평사)	3월22일 水 (2/25)	대전, 대덕	충경, 국파 청강공	효평종친회총무 염윤수 (010.4603.1135)
柳川祠 (유천사)	4월15일 土 (3/19)	전남 화순	퇴은당 4위	화순종친회장 염용희 (010.4396.3526)
江華사단 (강화시재)	4월 9일 日 (3/13)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충경공 外 3위	대종회 (010.7731.9788)
水鉉祠 (수현사)	10월21일 土 (9/2)	충남 보령, 미산	충경, 국파공	보령종친회장 염규현 02)362.7407
永川사단 (영천시재)	11월20일 月 (10/3)	경북 영천	재상공, 국파공	부산종친회 회장 염현식 (010.3585.9999)
敬思齋 (경사재)	11월20일 月 (10/3)	임실. 신평	동정공 外 40위	임실종친회장 염삼섭 (010.4783.7294)
羅州사단 (나주시재)	11월22일 水 (10/5)	전남 나주	충경공 外 7위	광주종친회장 염동련 (010.3615.6638)
忠義祠 (충의사)	12월1일 金 (10/14)	경남 통영	참의공 外 11위	부산종친회

* 향사일 음력 기준으로 - 행사주관 종친회 확인 필요 (토. 일요일 행사시행 확인)

◆ 대동보책자족보 발행 ◆

파주염씨 인터넷족보에 등록하신 분 - 책자족보발행

- 발행예정 : 2018년 상반기
- 인터넷족보 미 가입하신 분 → 2018년 2월 말까지
가입되어야 가능합니다. (www.pajuyom.kr)
- 발행금액 : 추후공지
- 대동보책자족보 희망자 → 지역종친회 접수요망

※ 책자자리 보기 - 전자족보 - 가승보 - **대동보초안**

※ 책자대동보신청 - 전자족보 - 가승보 - **책자족보신청**

대종회 총무이사 염 명 선 (010-8958-8800)

합천문중승조당 (2004년건립 250위 안치가능)

국파공파 15세휘 신흡계 후손

제실 인산재 (1949년 기축년 건립)

2016년도 예산결산**■ 수 입**

과 목	금 액	비 고
통 장 이 월 금	3,902,922	농협
현 성 금	3,600,000	전주회장 우리은행 100,000별도
예 탁 금 이 자	1,932,892	2억예탁금이자 3,932,892원중 2,000,000원 재예탁
예 금 이 자	3,797	
총 계	9,439,611	

■ 지 출

과 목	금 액	비 고
조 의 금 조 화	156,000	대종회 이사
회 의 비	544,000	총회 중식
후 원 금	1,000,000	
실 효 지 배	1,412,000	주차장공사 포크레인, 골재 950,000 나무심기 462,000
제 수 비	1,860,000	
재 산 세 (건 물)	44,430	
재 산 세 (토 지)	793,040	영천 포함
향 사 비	900,000	
별 초 비	500,000	
결 산 지 방 세 및 소 득 세	550	
소 계	7210,020	
이 월 금	2229,591	
총 계	9,439,611	

2017년도 예산 심의 (안)

(2011. 1. 1 ~ 2017. 12. 31)

■ 수 입

과 목	금 액	비 고
이 월 금	2,229,591	
정 기 예 탁 금	2,927,913	예탁금원금 202,000,000(3/23)
강 화 현 성 금	4,500,000	
찬 조 금	5,000,000	종보발행 광고비 등등
계	14,657,504	

▶ 2016년 현성금 3,700,000원(전주종친회 포함)

■ 지 출

과 목	금 액	비 고
회 의 비	1,000,000	총회 중식
강 화 제 수 비	2,200,000	
재 산 세	900,000	
불 초 비	1,600,000	7위 제수 및 중식
향 사 비	900,000	
전 화 비	100,000	서울사무소
종 보 발 행	5,000,000	2017년 10월말 발행
경 조 비	500,000	애경사 등 경조비
제 초 제 살 포	300,000	농약 및 인건비
예 비 비	2,157,504	잔액은 이월금
계	14,657,504	

편집후기

2002년 파주염씨대종회보를 15호로 마감한 후 무려 15년간이나 휴간되어 왔으나, 금년에 다시 16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원고를 내주신 종친 일가분 제위에게 감사를 드린다. 편집장소제공등 협조해주신 수원종친회와,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지역종친회장, 염문규대종회장, 편집위원과 인쇄발간을 해준 수원 아이애드맥스 염태훈 사장에게도 감사드린다. 대종회보는 매년 계속 발간되어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염문에 화목돈독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 대종회장 염문규, 부회장 염상열, 사무국장 염상천, 편집자문 염은식